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일본의 미래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주님의 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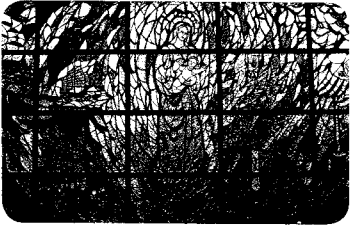
일본은 가을 색이 짙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일본 각지의 시골에 방문하면 열매가 풍성하고 벼 이삭이 물결을 치고 있는 풍경과 단풍에 물들인 산들, 그리고 운동회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환호에 둘러싸여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보았던 가을 풍경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9월에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임원진 인사이동으로 최영식 신부님과 남궁성은 교수님이 퇴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회의료법인 눈의성모회 성마리아병원 그리고 성마리아그룹 직원을 대표하여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협력해 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항상 지도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수년간에 걸쳐 개설자인 초대이사장 저의 아버지이신 이데 이치로, 그 다음해의 2대 이사장이셨던 저의 형인 이데 미찌오가 세상을 떠난 후 가톨릭 이념을 기본으로 한 법인 그리고 병원의 붕괴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뛰어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의 결과라고 직원 일동은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일어난 일은 하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련으로 이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가톨릭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취임하신 CMC 이동익 의료원장 신부님, 손호영 의무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2년간 가톨릭 이념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상호 기술협정의 보다 더 나은 심화와 확대를 위해서 차후에도 많은 지도 바랍니다.

지난 「Health&Mission」에서 “일본 의료의 전망”이라는 테마로 일본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8월말에 실시된 국회의원의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사회 정세입니다. 전쟁 후 55년간 정권을 잡아왔던 자유민주당이 대 패배를 하여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원인은 수년간 자유민주당에서 선출되었던 총리의 단기간의 교체, 시장원리주의를 기본으로 한 경제로 사회기반의 격차 확대, 게다가 작년 말 이후의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업자 증가 등, 사회적 요인으로 국민의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정권이 정식으로 발족되어 아직 한 달



도 안되었지만 이 한 달간 일본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전 정권이 입안한 보정예산이 대폭적으로 검토에 착수되어 실행직전 그리고 실행 중의 여러 가지 예산이 동결되고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에게 공약했던 것을 모두 실시하기 위해 2010년도 국가예산을 대폭적으로 재정립하여 예산 총액은 과거 최대의 95조 380억 엔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예산을 조달하는 국민 및 기업 등으로 인한 세수(稅收)는 국내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아 40조엔이 채 못되고 약 50조엔의 국채가 발행 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나라와 지방을 합친 장기 채무는 830조엔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금액은 일본 국내 총생산의 2배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계속해서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 필연적인 사회보장의 확대 및 재정의 채무확대는 국민의 불안과 기대가 교차되는 상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과거 수년간 전 정권으로 인한 의료비 삭감 정책으로 국립, 공립, 민간의 많은 병원이 재무상의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은 이 수년간 조직형태를 재정립하고 진료·간호업무의 재정립 등으로 인해 가톨릭 병원으로서 지역주민, 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심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의 건전화로 내년도부터 신 병원 건설이 착수 됩니다. 조직개편, 진료·간호업무의 재정립하고 또한 건설계획에 관해서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여러분, 특히 CMC(서울성모병원)의 모든 분들이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발족되어 차후의 구체적인 일본의 미래 그리고 사회보장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은 가톨릭 이념을 기본으로 한 진료·간호를 한층 더 충실히하고 더욱 발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수련병원으로서의 시설 중 가톨릭 이념을 가진 임상연수 시설이 수적으로 매우 적으므로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저희 병원의 활동은, 일본 내에서의 가톨릭 선교 중 하나로서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2009년 10월 20일

일본에서는 수련병원으로서의 시설 중 가톨릭 이념을 가진 임상연수 시설이 수적으로 매우 적으므로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저희 병원의 활동은, 일본 내에서의 가톨릭 선교 중 하나로서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期待と不安が交差する日本の将来

社会医療法人 雪の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 主の平安

日本は秋の気配が一段と色濃い季節となりました。日本の各地の田舎を訪れますと、実り豊かな稲穂の風景と紅葉の山並み、また体育祭での子供たちの歓声に包まれた平和な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す。過去に数回秋の韓国を訪問した風景と全く同じ環境です。

皆様方におかれましてはご健勝でご活躍のことと存じます。

さて、9月に韓国カトリック病院協会の役員人事異動により、会長の崔榮植神父様また医療院長の南宮成銀教授がご退任されたことのご連絡を頂きました。社会医療法人雪の聖母会聖マリア病院また聖マリアグループの職員を代表し、これまでの私どもへのご協力ご理解ご指導に対しまして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この数年間に生じた開設者の初代理事長であります私の父井手一郎、翌年の二代目理事長であります私の兄井手道雄の相次ぐ帰天は、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法人また病院の崩壊の瀬戸際にさらされました。この困難な試練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のは、韓国カトリック病院協会の皆様方の暖かいご支援の結果と職員一同感謝しております。私どものこの一連の出来事は、神様が私どもに与えていただいた試練であり、この試練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たのはカトリックの信仰であ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回、会長として李東益神父様、また医療院長に孫皓永教授がご就任とのことですが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また、22年間の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相互の技術協定のより一層の深化と拡大のために今後ともご指導の程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ところで、前回の「Health & Mission」で「日本の医療の行方・・・」とのテーマで日本の医療について述べさせて頂きました。日本は現在、8月末に実施されました国会議員の選挙で政権が交代し、期待と不安が交差する社会情勢となっています。戦後55年間政権を執ってまいりました自由民主党が大敗し、野党でありました民主党に政権が交代致しました。この原因は、この数年間の自由民主党より選出された総理大臣の短期間での交代、市場原理主義に基づいた経済による社会基盤の格差の拡大、さらには昨年末以来の世界経済の不況による失業者の増加等、社会的な要因による国民の意思が選挙の結果に反映されました。9月中旬に政権が正式に発足しまだ1ヶ月足らずですが、この1ヶ月間は、わが国経済不況のために前政権が立案しました補正予算の大幅な見直しに着手し、実行直前また実行中の種々の予算が凍結または減額されております。また、2010年度国家予算の大幅な見直しを開始され、政権交代のために国民に示されたマニフェスト(政権公約)を実施した場合、予算総額は過去最大の95兆380億円と見積もられました。

一方、これらの予算を賄う国民及び企業等による税収は、国内景気の不況のあおりを受け40兆円足らずであり、約50兆円強の国債が発行される予定であります。その結果、国と地方を合わせた長期の債務は830兆円に達する見通しで、この金額は日本の国内総生産の2倍に迫る水準となっています。少子高齢社会が今後も急速に進行する現在、国民の必然的な社会保障の拡大及び財政の債務拡大は、国民の不安と期待が交差する状況を生じさせております。

医療に関しては、この数年間の前政権による医療費削減政策により国立、公立、民間の多くの病院が財務上の破綻に陥っております。幸いなことに私どもの病院は、この数年間の組織形態の見直し、診療・看護業務の見直し等によりカトリック病院として地域住民、地域医療機関より中核病院の機能としてのさらなる期待が寄せられています。また、財務の健全化により来年度より新病棟の建設に着手致します。組織の改変、診療・看護業務の見直した建設計画に関しましては、韓国カトリック病院協会の皆様方、特にソウル聖母病院の皆様方のご指導の賜物であります。

新しい政権が発足し、今後の具体的な日本の将来また社会保障の絵が描かれると思いますが、私どもは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診療・看護のさらなる充実、高度化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日本の大学医学部、歯学部卒後教育機関として数少ない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実践的な臨床研修病院施設の維持は、日本のカトリックの宣教の一つであり、与えられた使命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今後とも皆様方のご指導、ご鞭撻の程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神に感謝

2009年10月20日